

식민지 농촌 경제의 재편성과 리얼리즘의 도정

— 이기영의 『고향』에 나타난 ‘여성 노동’을 중심으로*

황 지 영**

요약

본고에서는 프로문학의 가장 큰 성취라고 평가받는 이기영의 『고향』을 재독하여, 작품 속에서 식민지 농촌 경제의 중요 축인 ‘여성 노동’이 재현되고 의미화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작품 속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렴한 것들(cheap things)’로 치부되는 자연, 식량, 돌봄, 돈(임금) 등과 중층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면서, 식민지 농촌 곳곳에 흩뿌려진다. 여농(女農)들의 지속적인 노동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채 풍경처럼 처리되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재생산 노동은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해 실감나게 재현되지만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또한 근대적 노동이자 공적 경제의 일부부인 여공들의 노동은 주요 인물인 갑숙을 중심으로 이상화된다. 식민지 농촌에서 화폐경제 중심의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직접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거나 재화를 생산하지 못하는 요소들은 비생산적인 것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비노동(non-work)화가 진행된다. 이기영은 『고향』 안에서 여성 노동을 통해 식민지 농촌이 근대와 전근대, 전통과 외래, 생산과 비생산, 노동과 비노동 등이 길항하면서 농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유지되고 변모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고향』은 식민지 조선의 농촌 경제가 저렴한 것들로 회수되는 경로를 여성 노동을 매개로 그려냄으로써, 기존의 리얼리즘 소설들을 보완하면서 리얼리즘의 다음 단계를 예비한다.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0).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주제어: 이기영, 고향, 여성 노동, 비노동(non-work), 재현, 의미화, 리얼리즘

목차

1. 식민지 농촌 경제와 여성들의 비노동(non-work)
2. 노동들의 연쇄와 여농(女農)의 풍경화(風景化)
3. 마름집 재생산 노동과 비사건화(非事件化)
4. 임노동제의 가장자리에서 이상화된 여공
5. 재현의 아포리아와 리얼리즘의 도정

1. 식민지 농촌 경제와 여성들의 비노동(non-work)

1933년 11월 15일부터 1934년 9월 2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이기영의 『고향』은 총 38개의 장으로 구성된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프로레타리아의 미적 요구에 부응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¹⁾으로 평가된다. 작가는 김희준이라는 문제적 개인이자 새로운 인물 유형을 창조하여 “이념 개진과 현실 반영의 유기적 종합과 이를 통한 ‘구체적 시간성’의 확보”²⁾라는 프로문학의 과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식 능력과 작가 자신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 농촌의 삶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여 미학적인 측면도 확보한다.

1920년대 농촌인 윈터마을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이 작품 속에는 국내외적 경제 상황에 대한 서술들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한다. 제국 일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면, 이 작품은 식민지 농촌의 지배 세력과 손잡고 농민들을 극한적 궁핍 상황으로 몰아가는 “일본 자본주의의 폭력성”³⁾을 묘파하고 있다. 그리고 192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

1) 이재선, 『한국소설사: 근·현대편 I』, 민음사, 2000, 333면.

2)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9, 128면.

3) 김윤식·정호웅(1999), 위의 책, 400면.

획에 의한 농촌수탈정책에서, 1930년대 경공업 위주의 공업화 정책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파행적인 경제구조가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⁴⁾ 소설 속에 재현된 당대의 경제적 상황은 1920년대의 농업 중심 경제에서 1930년대의 공업화로의 이행 과정을 짐작케 한다.

작품 속 서사는 거시적 차원의 경제 변화가 농촌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본으로 유학 갔던 김희준이 귀향하면서 펼쳐진다. 원터 마을에서는 근 십 년 내에 제방 공사, 제사공장 건설, 철도 부설 등 세 가지의 커다란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근대적 공장이 들어섰고 경부철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행정, 경찰, 우편 등 근대적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근대화가 가져온 경제적 변화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전까지 푼거리 양식이었던 ‘재강(술지게미)’은 이제 매매 가능한 상품이 되어 판로가 확장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집집마다 길쌈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짠 옷감을 구입해서 옷을 해 입는 세상이 되었다. 이처럼 상호부조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던 식민지 농촌에서 상품매매를 둘러싸고 근대적인 화폐경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준은 마을의 실세인 마름 안승학과 대립하면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회를 구심점 삼아 마을 사람들을 계도하며, 두레를 이용해 공적 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벗어던지고 농민들의 삶을 내면화하여 마을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변모해 나간다. 김희준을 중심으로 이기영의 『고향』을 읽을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방향이 주를 이루게 된다.

리얼리즘과 김희준에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은 『고향』의 미학적이고 서사적인 특징을 식민지,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과 연결하여 다루면서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김철은 근대 리얼리즘

4) 문홍술, 「이기영 《고향》에 나타난 미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Vol.4, 한국현대문학회, 1995, 131면.

문학의 지식인·주인공·작가가 근대적 노스탤지어를 매개로 현실의 존재론적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함을 고찰하고⁵⁾, 문홍술은 이 작품의 미적 특수성을 “현실의 총체적 형상화라는 리얼리즘의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⁶⁾ 황종연은 이기영의 『고향』이 김희준과 김선달을 비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진화론적 역사관에 과열을 내면서 서양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역사주의에 대항함을 밝힌다.⁷⁾ 최은혜는 황종연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마르크스주의적 감각을 지닌 식민지 지식인 김희준에게 농촌과 고향은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의 공간임을 규명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가 경제운동을 통해 유토피적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전성을, 전통적인 농촌공동체를 이용해 대리보충함을 설명한다.⁸⁾

그런데 『고향』을 위시하여 이기영의 작품들을 ‘여성’ 혹은 ‘젠더’적 관점을 반영해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작가의 여성 의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손유경은 작품 속 윈터마을이 유토피아처럼 재현되고 있지만 이곳은 여성과 재생산이 지워진 공간임을 밝히고⁹⁾, 배상미는 프로문학 안에서 재현된 젠더가 프로문학을 새롭게 독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전제한 후 『고향』을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가족제도의 변화를 그린 작품으로 규정한다¹⁰⁾. 또한 서영인은 이 작품이 전후반 서사가 끊어지는 이원적 체계임을 분석

5) 김철,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탤지어의 시공(時空)」, 『한국문학연구』 제30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47-74면.
 6) 문홍술(1995), 앞의 논문, 129-149면.
 7) 황종연, 「문학에서의 역사와 반(反)역사 이기영의 『고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No.6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171-213면.
 8) 최은혜, 「식민지 사회주의 농촌소설에서의 주체와 공동체 — 『고향』과 『상록수』 겹쳐 읽기」, 『現代文學理論研究』 No.85,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221-258면.
 9) 손유경, 「재생산 없는 ‘고향’의 유토피아」, 『한국문학연구』 No.4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87면.
 10) 배상미, 「1930년대 전반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와 한국문학사—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No.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37-68면.

한 후 그 분리를 이어주는 여성 인물들의 서사적 역할을 강조한다¹¹⁾. 이외에도 이기영의 ‘여성소설’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이선옥의 연구와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여성해방’ 소설이라는 주제론으로 접근한 이미림의 연구¹²⁾, 그리고 이기영의 소설들을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살핀 이채원의 연구¹³⁾ 역시 주목할 만하다.

기존 연구들을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정리할 때 특히 주시해야 할 점은 이기영이 1929년에 발표한 「부인의 문학적 지위」¹⁴⁾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이다. 이 평문에는 이기영의 여성 의식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어, 여성과 젠더적 관점에서 그의 작품들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 글은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핀 논자들과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소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논자들이 나뉘고, 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 사이의 의견이 각각 갈린다.

우선 이 글 자체에 대한 김정숙과 손유경의 상반되는 평가를 살펴보자. 김정숙은 이기영이 이 글에서 “여성억압의 역사적 기원과 그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를 계급적 시각에서 탁월하게 정립하였다”¹⁵⁾고 평가한 반면 손유경은 이 글에 나타난 이기영의 여성 의식이 “봉건적 여성관의 타파를 위해 과학적 세계관의 도입을 주장한 후 그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금 전통적 여성상(낳고 기르는 어머니)을 환기하는 원환 구조를 띠고 있다”¹⁶⁾고 비판한다. 김정숙은 이기영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지만 손유경

11)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학사연구』 No.4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37-165면.

12) 이미림(2001), 앞의 논문, 138-139면.

13) 이채원,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이기영 -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49면.

14) 이기영, 「부인의 문학적 지위」, 『근우』 제1호, 1929.5.; 임규찬·한기형, 『작가론 및 작품론: 카프비평자료총서Ⅷ』, 태학사, 1990, 338-342면.

15) 김정숙, 「매개적 인물의 창조와 비판적 현실 인식 -이기영의 『고향』 이전의 소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No.8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672면.

은 글의 논리적 모순을 간파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다음으로 이채원과 이미림은 이 글에 담긴 작가의 의식이 소설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채원은 이기영의 여성 해방적 성격은 그의 문학적 실천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상을 만들어냈다고 고평한다.¹⁷⁾ 이와 달리 이미림은 이기영이 이 글에서 여성해방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의 '여성해방' 소설들 속에서 계급해방은 성공했으나 성(gender)에 대한 언급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¹⁸⁾

이처럼 「부인의 문학적 지위」라는 글에 대한 논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작가의 평문과 소설을 읽는 연구자들의 해석 지평이 다각화된 것과 관계가 있다. 작품이 창작되었던 1930년대의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기영의 여성 의식은 다른 프로문학의 작가들에 비해 선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품을 해석하는 연구자들의 의식과 역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섬세해졌고 다중다기한 방식으로 분화되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본고 역시 『고향』에 대한 해석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후, 여성 노동을 매개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식민지 농촌 경제의 재편성 과정을 읽어보려고 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가 연동하면서 힘을 발휘하던 시기에 식민지, 여성, 자연이 이 구조를 뒷받침하는 데에 일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서구에서는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재생산 노동 안에 갇혔고, 모성은 강제노동의 지위로 격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을 비노동자(non-worker)로 규정하였고,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은 성과물을 내다 팔기 위한 노동일지라도 비노동(non-work)으로 처리되었다. 가내에서 여성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입을

16) 손유경(2013), 앞의 논문, 187면.

17) 이채원(2013), 앞의 논문, 49면.

18) 이미림(2001), 앞의 논문, 138-139면.

옷을 만들면 그것은 ‘집안일’로 분류되었지만, 남성이 옷을 만들면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되었다. 게다가 여성들의 가외노동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보수도 남성노동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충분치 않았다.¹⁹⁾

자본주의 초기에 여성들의 노동이 가치 절하됨을 분석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라즈 파텔과 제이슨 W. 무어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일곱 가지 저렴한 것들(Seven cheap things)’로 자연, 노동, 돌봄, 돈, 식량, 에너지, 생명을 꼽는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각 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여성’을 분석한다. 특히 이들은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의 기초이며 ‘여성의 노동’은 자본주의의 발흥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이 비노동으로 투명하게 취급되었고 저렴할수록 더 나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분석한다.²⁰⁾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저렴한 것들에 대한 사유를 본고의 논지에 맞게 재구조화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식민지 농촌의 경제를 구성하는 여농·주부·여공(노동)을 가운데 두고 자연, 돌봄, 임금이라는 세 요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여성-자연, 여성-돌봄, 여성-임금이라는 항들을 만들 수 있다. 식민지 농촌의 여성 노동은 사회적 영역이 아니라 ‘공짜 선물’로 취급되는 자연과 동급으로 처리되거나(여성-자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돌봄은 점점 더 여성들의 영역이 되었다(여성-돌봄). 그리고 여성들은 생산 노동에 종사할 때에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갔다(여성-임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얼리스트인 이기영은 여성 노동을 둘러싼 상황들을 적확히 인지하고, 『고향』 속에서 이를 다채롭게 재현하였다. 작품

19)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옮김, 『켈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9, 151-152면.

20)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백우진·이경숙 옮김,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북돋움, 2020, 52-53면.

속에서 끝나지 않는 노동 속에 갇힌 여농(女農)의 삶은 시각 묘사를 중심으로 풍경처럼 처리되고, 주부를 비롯한 재생산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은 사건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촉각과 청각을 사용해 소란스러운 것으로 구현된다. 또한 임금노동제의 주변부에 머무르며 여공을 대표하는 갑숙의 모습은 이상적으로 제시된다.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과 재현은 젠더적인 차원의 문제를 촉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에 식민지 농촌 경제가 놓여 있었던 상황,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자원들을 ‘저렴한 것들’로 회수하면서 자본주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프로문학의 가장 큰 성취라고 평가받는 이기영의 『고향』을 재독하여, 작품 속에서 식민지 농촌 경제의 중요 축인 여성 노동이 재현되고 의미화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별 분업 및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집중한 기존의 논의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농촌 여성을 농업 노동자·재생산 노동자·공장 노동자로 나누고 각각이 재현되는 방식을 풍경화·비사건화·이상화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농촌의 파행적인 자본주의화와 더불어 여성 노동에 대한 비노동화가 진행됨을 밝힐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리얼리즘의 결작”²¹⁾이라고 일컬어지는 『고향』을 ‘리얼리즘의 완성태’가 아니라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 리얼리즘의 다음 단계를 예비하는 작품으로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2. 노동들의 연쇄와 여농(女農)의 풍경화(風景化)

식민지 시기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팔할’을 훨씬 넘어섰다.²²⁾ 그래서 이들은 ‘절대다수의 군중’으로 명명되었지만 ‘가장 비

21) 문홍술(1995), 앞의 논문, 130면.

22)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학과학사, 2011, 130면.

참한'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다.²³⁾ 여농(女農)들은 대부분 기혼 여성이었으며, 농민이라는 직업적 지위와 가정주부라는 역할적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았다. 그래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겹치게 되었는데 이 두 노동은 잘 구분되지 않아서 농촌 여성들은 '농경 협조자' 혹은 '농경 보조자'로 인식되었다.²⁴⁾ 이들은 "밥짓고 옷만들고 빨래, 길쌈, 방아찝고 소먹이는 일에서 씨앗뿌리고 김매며 모심고 논매고 피땀으며 배어 눕히고 거두어들이는 일"²⁵⁾ 등에 남성들과 같이 참여하였다. 여농들은 가정 안팎의 일을 준비에서부터 끝맺음까지 관장하였지만 이들의 노동은 구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향』의 첫 장인 '농촌점경(農村點景)'은 무더운 여름날, 식민지 조선의 농촌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원시적 서정성에 감싸인 공간"²⁶⁾으로 재현되는 원터마을에서 뜨거운 태양과 이따금 부는 바람, 물이 끓어오르는 논, 물속에 뛰어드는 개구리 등 자연의 모습은 집에서 홀로 동생을 돌보는 인순이를 거쳐,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온 여농 박성녀의 형상으로 연결된다.

화중발을 매는 인동이 모자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표1〉 조선인 주업자의 성별 업종별 구성비율 (단위:%)

성별	연도	농업	공업	상업교통업	공무자유업	기타	합계
여자	1920	93.3	1.2	3.8	0.5	1.3	100.0
	1930	91.2	1.0	3.9	0.8	3.1	100.0
	1940	89.7	1.8	4.0	0.8	3.6	100.0
남자	1920	90.2	1.7	4.9	1.7	1.5	100.0
	1930	85.5	2.1	5.7	2.4	4.5	100.0
	1940	78.4	3.3	7.3	2.8	8.2	100.0

23) 이성환, 「근후의 조선여성운동」, 『근우』 창간호, 1925, 42면.

24) 장인형, 「日帝下 女性 勞動의 社會的 認識」,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29면.

25) 배성용, 「농촌부인의 생활-그를 도시여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신여성』, 1926.8., 28-31면.

26) 김철(2006), 앞의 논문, 57면.

비 맞은 사람처럼 땀을 호줄근히 흘렸다. 낙숫물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을 박성녀는 호미 든 손으로 연신 씻었다. 치마폭에는 열무를 뜯어 담은 것을 다른 한 손으로 붙들었다. 그래 애 밴 여자처럼 그는 어기죽거리며 걸어온다.

“어머니!”

“엄마 젓! …… 젓 줘!”

인순이와 인학이는 반겨서 모친을 불렀다.

“왜들 나와 셴니? 집은 비우고.”

인동이는 여치를 잡아 가지고 오던 것을 인학이에게 주었다.

“엄마 젓 먹고 여치하고 잘 놀어라! 응?”

그들은 보리 찬밥으로 점심 요기를 하고 또 밭으로 나갔다.²⁷⁾

위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전후의 장면에서 노동의 주체로 그려지는 것은 농촌의 여성들이다. 어린 인순이는 동생이 잠에서 깨면 달래기도 하고 어머니가 가져온 열무를 다듬기도 하지만, 동생이 자는 동안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겨를이 잠시나마 있다. 하지만 박성녀는 밭을 매다가 열무를 뜯어와 점심을 준비하고 인동에게 젓을 먹인 후 또다시 밭으로 나가 일을 하는데, 이것은 그의 노동이 집 안팎에서 형태를 바꿔 지속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순환되는 노동에는 휴지(休止)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쉬지 못한다.

노동의 연쇄 속에서 그의 시간은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 긴밀하게 얽힌 상태로 채워진다. “풋보리 바심하라 조석을 끓여 먹으라 밭 매러 다니라”(159) 집 안팎의 일이 쌓여서 “한시도 헤어날 틈이 없”(159)는 성녀는 눈을 뜨고 있는 낮 동안은 일거리에 허둥대다가 해가 넘어가면 저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그리고 현실에서뿐 아니라 꿈속에서도 일거리에 가위가 눌림에도 그의 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다.

27) 이기영, 『고향』, 문학과지성사, 2005, 14-15면.

성녀의 노동과 달리 『고향』 속에서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경제적 계산의 영역은 희준의 ‘풍물 구입’을 통해 형상화된다. 안승학과 대결하면서 ‘두레’를 통해 농민 중심의 ‘대항 경제’를 모색하는 희준은 윈터마을에 두레를 만들 구상을 하면서 김선달과 상모, 패랭이, 장삼 등 풍물 제구 일습을 구입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윈터마을 사람들이 짓는 농사가 거의 십여 석지기나 되므로 두레를 시작하면 타동 전장의 고지를 안 메더라도 몇 십 원은 남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국 그의 계산은 적중하여 윈터마을의 두레는 풍물 값을 제하고도 이십여 원이 남는다.

작품 속에서 희준이 주도한 ‘두레’는 그전까지 분열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게 만들었고 희준이 ‘동유재산’의 귀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계산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남성 인물의 경험은 작품 속에서 개인의 각성과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주요 사건으로 형상화된다. 이와 달리 여농들은 예측과 측정, 그리고 계획과 설계가 필요 없는 무가치한 노동의 세계, 다시 말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노동의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 이들의 노동에는 남성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은 없고 지속과 반복만이 있을 뿐이다.

『고향』 안에서 여농의 노동은 비용 없이 연속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주체적인 것으로도 재현된다. 이기영의 소설들에서 농민이 주체로 행동하는 법이 없었다는 지적은 냉혹한 평가이지만 일정 부분 사실이다. 작품 속 농민들은 지식인 주인공이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자 개조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²⁸⁾ 그리고 풍경처럼 처리되고 자연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여성 농민은 남성 농민에 비해 더욱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의 역할은 작품의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배경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품 안에서 여농의 풍경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

28) 김철(2006), 앞의 논문, 66면.

엇인가? 이기영은 “남녀 양성을 대등으로 취급한 문학이 진실한 (인간) 문학”²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의 지식인인 작가 이기영과 주인공 김희준의 시선이 발견한 ‘고향’과 ‘농촌’과 ‘자연’은 식민지 속의 또 다른 식민지였고, 농촌의 여성들 역시 그들에 의해 다시 식민화된 존재들이었다. 손유경의 지적처럼 “자연과 여성 간의 담론적 교차기입”³⁰⁾은 지리적·미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자연과 여성을 공통항으로 묶어낸다. 원터마을의 생산성은 무가의 자연과 여성들이 수행하는 무임노동의 이익을 자양분 삼아 점차 증가한다.

가령 풍경묘사 같은 것은 장소의 상황이라던가, 인상의 감동적인 전달이라던가 생기(生起)할 운명에 대한 호기심의 자극이라던가 하는 수단으로서 행사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의 휴소(休所)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고향』이 가지는 처처(處處)의 아름다운 풍경묘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쉽사리 분간할 수 있는 일이지니와 설화란 그렇게 감정의 휴소를 만든다가 하는 심정의 산책(散策)적 수단으로서는 사용되어질 성질의 것이 못 된다.³¹⁾

이기영과 동시대에서 활동했던 안함광은 『고향』에 나타난 묘사와 설화(서사)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묘사의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풍경 묘사는 장소의 상황을 소개하고 감동적인 인상을 전달한다. 또한 운명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심정의 산책적 수단”이다. 다른 농촌소설에 비해서도 자연에 대한 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 작품 속에서 풍경 묘사는 우주의 섭리에 따른 계절의 변화와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다채로운 감정들을 표현한다. 하지만 남성 인물들이 적극적인

29) 이기영(1929), 앞의 글; 임규찬·한기형(1990), 앞의 책, 341면.

30) 손유경(2013), 앞의 논문, 190, 202면.

31) 안함광, 「로만 논의의 제과제와 『고향』의 현대적 의미」, 『인문평론』 제13호, 1940.11.; 임규찬·한기형 공편, 『카프비평자료총서8: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414면.

행위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과 실천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여성 농민들은 풍경과 더불어 장소의 상황을 소개하고 “감정의 휴소”를 생산하는 것에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고향』 속에서 여농들의 노동은 원터마을을 둘러싼 풍경 속으로 흡수되면서 자연의 일부로 치부된다. ‘여농(女農)’의 모습은 ‘자연’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재현되면서 배경처럼 후경으로 밀려나고, 작가는 김희준의 눈을 빌려 농촌의 자연과 여성들을 관조의 대상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여농의 노동을 농촌의 풍경과 하나의 화면 안에 배치한 후 묘사함으로써, 자연과 여농의 노동이 소설 속에서 갖는 무게나 경제적 차원의 가치가 유사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다시 말해 남성들의 생산노동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는 대조적으로 자연과 여농의 노동은 생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지만 자연화한 본능의 영역에 갇혀서³²⁾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처리된다.

김남천은 이기영의 문장을 지적하면서 “쓸데없는 반복과 되풀이와 군더더기 잔소리”가 너무 많고 “자연주의적 냄새”가 난다고 평한다. 이러한 특징은 농촌의 풍경을 묘사할 때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이기영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강한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여농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촌의 풍경과 그 속에 안기어 영위되는 농민의 생활”³³⁾을 그려낸다. 그리고 확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과 유사하게 여성 노동을 그려냄으로써, “현실사회를 본질과 현황 그리고 모순과 당착과 결합 속에서 가장 투철하게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작가”³⁴⁾라는 평가를 받는다.

32) 손유경(2013), 앞의 논문, 204면.

33) 김남천, 「이기영 검토-II. 사상. 작품. 문장」, 『풍림』 제6호, 1937.5.; 임규찬·한기형 공편, 『카프비평자료총서8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382면.

34) 김남천(1937), 위의 글; 임규찬·한기형 공편(1990), 위의 책, 381면.

3. 마름집 재생산 노동과 비사건화(非事件化)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농업인인 박성녀의 노동은 가외 노동과 가내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였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 가사를 돌보고 다시 밭으로 나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원터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마름집에서 여성들의 가외 노동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훨씬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그려진다. 안승학의 부인인 순경은 서울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하숙집 학생들을 돌보고, 안승학의 첩인 숙자와 아이 보는 덕례, 그리고 행랑어머인 길동 어머는 주부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마름집의 집 안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한다.

덕례는 마루에 걸레질을 치고 나서 요강 부시고 세숫물 떠놓고 또 무엇무엇을 하라는 숙자의 입시늑하기에 골몰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변 갑숙이가 안은 갑출이를 받아서 등에 업었다.

길동 어머는 부엌에서 혼자 모심는 일밥을 짓느라고 갈팡질팡했다. 그는 아궁이 앞에서 여러 군데 밥솥 국솥 지짐이 냄비에 불을 때느라고 얼굴이 연시감처럼 익고 땀이 나서 적삼 등을 흠뻑 적셨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낙숫물처럼 철철 흐른다.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리 닫고 저리 닫고 했다. 구정물 통에서 그릇을 닦다가 밥이 넘어서 쫓아갔다. 솥뚜껑을 밀어놓고 거품김을 붙고 나니까 또 국솥이 펄펄 끓어 넘었다. 국솥 아궁이의 불을 물리고 나니까 지짐이 냄비를 끓이던 불이 화르르 타 나온다. 그때 그는 또 그놈을 부지깽이로 긁어넣었다. 그는 그만 짜증이 났다.³⁵⁾

5장 ‘마름집’은 마름집의 모를 심는 날이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35) 이기영(2005), 앞의 책, 97면.

있다. 매일 반복되는 걸레질, 요강 씻기, 세숫물 떠놓기, 아이 보기 등 재생산 노동을 하는 덕례의 모습 이후에 전체 일꾼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길동 어멈을 매개로 하여 이날의 분주함과 부산스러움이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신없이 바쁜 날 숙자는 입으로만 온갖 일을 시킬 뿐이고, 덕례는 집안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아이까지 업고 있어서 부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길동 어멈은 혼자 불을 때고 음식들을 하느라 땀을 낙숫물처럼 흘리며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허둥댄다. 이때 마름집 딸 갑숙이가 길동 어멈을 돕겠다고 나서고 업둥이네가 도착하면서 부엌의 상황은 정리된다. 그리고 일꾼들을 위한 “북어지짐이, 아욱국, 미역자반, 무말랭이무침, 고등어 토막, 새우젓—”(97) 등이 무사히 마련된다.

음식 만들기를 포함하며 집안일 혹은 가사노동으로 불리는 ‘재생산 노동’은 인간의 삶과 노동을 매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와 활동의 복합체이다.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양산되는 거시적인 공정의 시작점에 본원적 축적을 둘러싼 제국과 식민지의 역학이 놓인다면, 미시적인 공정의 시작점에는 가정 안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이 놓인다. 자본주의는 노동력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부분 재생산 노동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재생산 노동이 ‘노동 기능(work functions)’을 지닌 것이 아니라 여성의 속성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재생산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그리고 재생산 노동자를 사회적 주체로 바라보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다³⁶⁾. 이 전략은 제국과 식민지를 가리지 않고 자본주의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주부들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는 『고향』 안에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과 대비되는 남성의 경제적 행위를 통해 가시화된다.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은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닌 외부인들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사

36)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옮김,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6, 21-32면.

회적인 노동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반면에 집 안사람들이 먹을 참외를 얻기 위해 원두막을 짓는 안승학의 계산법은 명확한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경제적 행위로 재현된다. 관료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가의 감각을 획득한 안승학은 해마다 여름이면 참외값이 수십 원씩 드는 것을 아까워 하며, 참외를 사서 먹는 것과 참외를 수확해서 먹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이익인지 계산한다. 계산표에는 원두막 건축비, 원두 매는 품값, 비료대, 종자대, 지세, 소작료, 숙직료뿐 아니라 낮 동안 가족들이 원두막에서 피서를 하여 절감되는 빨래 비용이 포함된다. 시원한 곳에 있으면 땀이 덜 나고 그러면 옷을 덜 빨아도 되기 때문에 옷값이 덜 상하고 비누도 절약된다. 이처럼 안승학은 원두막을 짓고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뿐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익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셈에 밝은 인물이기에, 돈은 물론 시간, 땅의 면적, 복수(復讎)의 방식까지도 모두 계산의 영역으로 보고 끊임없이 ‘수판’을 두드리는 ‘경제적 주체’로 형상화된다.

반면에 원터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숙자는 갑숙이의 눈에 악착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 만큼 분주히 살림을 챙기지만 그의 재생산 노동은 경제적 행위로 재현되지 않는다. 안승학네의 재생산 노동자인 길동 어멈과 어린 덕례의 노동은 숙자의 통제 아래 놓여 지속되지만 농촌의 소소한 일상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부분노동으로 규정되면서 ‘그림자 노동’으로 평가절하되지만, 사실이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키는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이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생존을 해야 하는 모든 인간은 옷을 입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기본 토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이다.

재동 막바지 오른쪽으로 있는 순경의 집에는 중학생들이 왕개미 떼같이 쭈알거리며 집 안이 떠나가도록 떠들썩하다. 그들은 오늘부터 하기

방학이 된 것이다.

순경의 집에는 기숙생이 사오 인 있었다. 거기에 자기 집 아이들을 합치면 칠팔 명 학생들이 날마다 복대기를 쳤다.

그들은 내일 아침차로 모두 고향에 돌아간다고 벌써부터 짐을 싣다, 무엇을 사들인다, 빨래를 한다, 편지를 부친다 하고 갖은 부산을 떨었다. 경호는 남몰래 양과자를 사다 두었다.

“어머니 우리들도 내일 아침에 내려갈라우.”

“그래라 다들 가거라!”

갑성이는 순경이를 친어머니처럼 따른다.

“아니 그럼 아주머니 혼자 계시게!”

“혼자 있으면 조용하고 좋지.”

“하하 참 우리가 죄다 떠나면 집 안이 적적할걸!”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실걸!”³⁷⁾

그럼에도 작품 속에서 하숙생들에게 비용을 받는 순경의 하숙집 운영 역시 생산노동으로 다루어지거나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지 않는다. 칠팔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순경의 하숙집은 숙자가 있는 마름집과 마찬가지로 소란스러운 곳으로 그려진다. 학생들은 “왕개미 떼같이 쭈알거리”고 항상 “떠들썩하”며 날마다 “복대기를 쳤”고 “부산을 떨었다.” 마름집과 더불어 순경의 집 역시 여러 명이 어우러져 생활하는 모습이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 실감나게 재현된다. 이런 공간에서 순경은 ‘적적’하거나 ‘심심’할 틈이 없다. 그가 오롯이 혼자서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은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본가로 돌아갈 때뿐이다.

순경과 숙자의 재생산 노동으로 유지되는 “가족은 본질적으로 여성 부블노동의 제도화이자, 무임금으로 인한 남성애 대한 종속의 제도화이며, 결과적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규율해 온 불평등한 권력분배의 제

37) 이기영(2005), 앞의 책, 267면.

도화”³⁸⁾이다. 가족 안에서 주부는 주변화된 무보수 노동자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주부의 재생산 노동은 노동력 생산에 기여하고 자본을 생산하며, 이로써 다른 모든 형태의 생산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생산조직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다.³⁹⁾

주부들의 재생산 노동이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에서 스펙터클하게 재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식민지 자본주의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이 창조되려면 다른 노동이 아무 보수 없이 이루어져야 했다. 재생산 노동은 노동을 수행할 신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의 대부분을 담당했는데, 이 노동이 없었다면 임금 노동은 몹시 비쌌을 것이다. 그래서 부불노동을 수행할 인간의 범주가 여성으로 정해졌고, 남성 중심의 임금 노동만을 ‘진짜 노동’이라고 여기며 주로 돌봄을 수행하는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체제는 자본주의가 자리잡는 데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역사가 거의 지워졌다.⁴⁰⁾

그래서 소설 속에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서사를 이끄는 주요 사건이 되지 못하는 못한다. 하지만 오감을 활용해 실제처럼 재현되어 농촌 마을에 대한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는 기재로 사용된다.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이 방식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는 있으나 새로운 세계를 창안하기 위한 이념이 개진된 것, 다시 말해 ‘있어야 할 세계’를 담은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작품 속에서 작가의 이념 개진과 변증법적 지양이 담긴 서사는 남성 인물들의 몫으로 할당된다.

38) 실비아 페테리치(2016), 앞의 책, 69면.

39) 실비아 페테리치(2016), 위의 책, 24~40면.

40)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2020), 앞의 책, 52, 158-159면.

4. 임노동제의 가장자리에서 이상화된 여공

자본주의는 상품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품 세계’이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노동력 상품’이다. 노동력은 상품 세계의 바깥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의해 재생산되고,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은 상품 세계와 국가라는 공간의 틈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구축해간다. 이 과정에서 무산자가 형성되고, 그들은 노동력 상품의 예비군이 된다.⁴¹⁾ 식민지 농촌에서도 많은 농민의 아들과 딸들이 노동 환경이나 임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⁴²⁾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되었다. 이기영의 『고향』 속에서 병아리 같던 인순이도,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던 여학생 갑숙이도 공장 노동자가 된다.

몸이 약한 갑숙이는 공장 일을 시작하고 나서 손이 튼튼해진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여공들은 밤낮없이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피곤에 지쳐갔다. 그들은 공장 안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고 청춘이 사그라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게다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붙여서 능률을 높이려 한다. 이런 가운데 어떤 여공은 폐병으로 각혈이 심해져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여공은 매일 울다가 말도 없이 집으로 도망을 간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여러 노동을 경험했고 자신이 원해서 공장에 들어온 인순이는 깨끗하게 이 상황을 견뎌 나간다. 그리고 자신이

41) 마쓰모토 다케노리, 윤희동 옮김, 『조선 농촌의 식민지 근대 경험』, 논형, 2011, 24면.

42) 강이수(2011), 앞의 책, 277면, 재구성.

〈표2〉 일제하 조선인 성별 임금 추이 (단위: 엔)

성별	연령별	1929년	1933년	1937년
남성	성년	1.00	0.92	0.95
	유년	0.44	0.40	0.42
여성	성년	0.59	0.50	0.48
	유년	0.32	0.25	0.32

생산한 물건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동 소외’를 경험한다. 공장에서 ‘인건’을 생산하는 자신은 무명옷을 입고 있지만, “방직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102) 갑숙이가 인조견 치마 적삼을 해입은 것을 보고는 갑숙이가 알맴다고 느낀다. 인순이가 느끼는 ‘알미움’은 경제 원리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겼음을 그의 인지적 수준에 맞는 어휘로 표현한 것이다. 공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상품의 원리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감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순이의 계급적 각성도 중요하지만 『고향』 속에서 여성 노동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갑숙이다. 그는 연인 사이인 경호와 혼인 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해 신경쇠약증에 걸려 매일 두통에 시달리는 여학생이었다. 수려한 외모와 아버지 안승학의 재력으로 인해서 걸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지만 그에게 인생은 허무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어릴 적 동무였던 희준이에게 감화를 받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아버지의 수중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여공이 된다. 공장에 들어가면서 ‘옥희’로 이름을 바꾼 갑숙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한 뒤로부터 노동자의 의식과 감정”(387)에 동화해 간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들려주고 싶은 동시에 그들의 대담한 성미를 배우고 싶어한다. 처음에는 나약한 신체를 한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칙적으로 노동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의지가 단련되어 간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그전과는 달리 생산과 소비의 문제, 잉여가치의 분배 문제 등에 관심을 갖는다. “한 회사의 사업과 한 공장의 생산은 겉으로 보면 민간의 일개 산업기관에 불과”(388)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본가의 “이윤을 불리기 위해 원료를 공급하고 상품을 생산하고 다시 소비계급으로 자기자신이 만든 상품을 헐한 품삯을 받은 임금으로 사먹어야만 되는”(388) 현실이 있음을 인지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를 어떻게 변혁하는가”(388)임을 깨닫고, “이 시대는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자유와 싸워야 할 것”(280)임을 직감한다.

『고향』에서 갑숙, 인순, 방개, 음전은 모두 공장에 취업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여학생에서 여공으로 변신한 갑숙이의 적극성과 여공들의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작품 안에서 여공이 된 갑숙이의 성격화와 여공 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 부분은 농촌의 황폐화로 인해 농민이 노동자가 되는 양상을 그려내고 있으나, 지엽적인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띠지 못하고, 심지어 작품의 전체 구조를 일그러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⁴³⁾ 갑숙이가 보여주는 성급한 각성과 이 인물에 대한 작가의 관념적 이상화 때문이다.

옥희는 겨울 동안에 여러 아이들과 친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은 인텔리라고 저희들 그룹에서 배돌게 하였으나 옥희는 의식적으로 그들을 사귀려 들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생활한 뒤로부터 노동자의 의식과 감정이 그들과 동화해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쓸데없는 잡담과 절망적인 탄식 속에도 때로는 불과 같은 맹렬한 열정과 동무를 사랑하는 믿음,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감이 번득인다. 또한 독립 자주적 정신으로 자기의 힘을 믿으려는 마음이 많은 듯하다.⁴⁴⁾

이기영이 『『고향』의 평판에 대하여』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갑숙이는 너무 이상적으로 그려져 성격화에 실패하고 만다. 이상을 쫓는 성급한 마음이 “봉건적 질곡 밑에서 더욱 이중으로 굴욕적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에

43) 김윤식·정호용(1999), 앞의 책, 151면.

44) 이기영(2005), 앞의 책, 533면.

게서 보다 순진고결한 이상적 성격을 발견하고 싶게”⁴⁵⁾ 만든 것이다. 그래서 갑숙이가 갑자기 집을 나와 공장에 들어간 후 ‘옥희’로 이름을 바꾸고 같이 생활하는 여공들 사이에 녹아 들어가는 모습이 개연성 있는 사건들의 연쇄를 통해서 제시되지 않는다. ‘인텔리’라서 여공 무리에 끼지 못하던 갑숙이(옥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그들이 열정과 믿음, 정의감과 자주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두 서술자의 설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현실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고된 여공들을 위한 스트라이크의 성공이 ‘장난거리’ 같이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진다.⁴⁶⁾

또한 갑숙은 원터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마름과 소작료 투쟁을 벌일 때 그들을 위해 지원금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도 단판이 나지 않자 자신의 약점을 회춘에게 알려주어 안승학을 몰아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작쟁이가 마무리되는 결말은 이 소설의 가장 큰 약점이다. 옥희가 된 갑숙이 입장에서 그것은 “의로운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528) 결단이었지만, 갑숙이 걷는 인생의 행로에 ‘환경의 필연력’ 혹은 서사적인 개연성이 부족하다 보니 그는 ‘관념의 화신’이자⁴⁷⁾ “가공적인 이상화된 신여성”⁴⁸⁾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인 치부가 사용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것’을 우위에 두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성취라고 보기 어렵다.⁴⁹⁾

45) 이기영, 『『고향』의 평판에 대하여』, 『풍림』 제2호, 1937.1.; 임규찬·한기형 공편, 『카프비평자료총서8: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357면.

46) 민병휘, 『민촌의 『고향』-문연구노트에서』, 『백광』 제3호, 1937.3.; 임규찬·한기형 공편, 『카프비평자료총서8: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371~373면.

47) 안함광, 『로만 논의의 제과제와 『고향』의 현대적 의미』, 『인문평론』 제13호, 1940.11.; 임규찬·한기형 공편, 『카프비평자료총서8: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418면.

48) 이기영, 『동경하는 여주인공-내 작품의 여주인공』, 『조광』 제42호, 1939.4.; 임규찬·한기형 공편, 『카프비평자료총서8: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390면.

49) 루나찰스키 외, 김휴 편, 『사회주의 리얼리즘-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문제』, 일월서각, 1987, 128쪽.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인물의 형상화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 인물이 지니는 의미가 사회주의적 지향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루카치는 현재의 혁명적 업적과 사회주의 사회의 고매한 목표에 관한 미래상을 종합하고, 사회적·역사적 현실에 관한 정확한 미학적 이해가 리얼리즘의 전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현실에 대한 진실한 묘사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징이라고 말한다.⁵⁰⁾

그러나 『고향』 안에서 소작쟁이가 단결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아니라 갑숙의 희생으로 마무리되면서 혁명적 업적과 사회주의적 지향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또한 여공들의 성격화와 서사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 작가의 소망이 더 강하게 작동하면서 현실성은 약화된 채 낙관적 전망에 이르고 만다. 이처럼 갑숙에 대한 이상화는 이 작품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으로서의 미학적 성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다. 앞에서 다룬 여농과 주부에 대해서 실제보다 적게 의미가 부여되었다면, 여공에 대한 의미 부여는 ‘과잉’되어 객관적인 형상화에 이르지 못한다.

5. 재현의 아포리아와 리얼리즘의 도정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향』은 리얼리즘 문학과 프로문학의 정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소설이다. 리얼리즘의 기본값은 현실(reality)을 재현(represent)하는 것이고, 창작 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비는 “객관적 현실의 올바른 문학적 반영”⁵¹⁾이다. 프로문학의 전개과정에서 거둔 성과들을 한데 모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문제작⁵²⁾이라는 상찬에서도

50) 데미안 그랜트, 김종운 옮김, 『리얼리즘』,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97-99면.

51) 문홍술(1995), 앞의 논문, 129면.

52)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1: 1896-1945』, 민음사, 2020, 372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성을 보여주면서 이념적·미학적 성취를 이뤄나간다. 리얼리즘의 대표작으로서 본격적인 현실 재현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⁵³⁾

이러한 성취를 이룬 여러 요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기영이 집필 장소로 농촌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고향』을 집필하기 위해 농촌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전에 없는 실감과 농촌에 대한 인상을 적지 않게 얻”⁵⁴⁾고 작가의 사회적 경험이 창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과거에 농촌에서 성장했던 경험과 도시에서 다시 농촌에 내려온 외부자의 시선을 함께 가동하여, “농촌으로 기어드는 자본문명!”⁵⁵⁾을 중심으로 조선 농민의 생활 형식과 상태를 남성 중심으로 형상화한다.

이 작품에 담긴 식민지 농촌의 경제는 제국과 식민지의 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거시적 구도에 안승학과 김희준이 만들어내는 미시적 구도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안승학과 김희준의 대결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소유’를 기반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안승학이 ‘불공정 경제’를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주체라면, ‘지식’의 담지자로서 권위를 얻은 김희준은 불공정에 저항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농민들의 합심을 이끌어내어 ‘대항 경제’를 창출한다. 둘은 식민지 농촌의 자본주의적 근대 경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경제적 변화의 주요한 축들을 구성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 나간다.

반면에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노동은 남성 중심 구도의 틈새에서 분절되고 평가절하된다. 유럽의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매개로 본원적 축적을 이루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안착한다. 이와 달리 비유럽의 식민지 자본주의는 본원적 축적을 이룰 수 있는 물질 토대로서의 식민지를 소유

53) 김철(2006), 앞의 논문, 69면.

54) 이기영, 「사회적 경험과 수완」, 『조선일보』, 1934.1.25.; 임규찬·한기형 공편, 『카프비평자료 총서8: 작가론 및 작품론』, 태학사, 1990, 349면.

55) 민병휘(1937), 앞의 글; 임규찬·한기형 공편(1990), 위의 책, 362면.

하지 못한 채, 여성과 자연을 식민지 삼아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한다. 가치체계가 교환체계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저렴한 것이라는 위상을 부여받고, 작품 속에서 여성 노동이 재현될 때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다.

이 작품에서 여성 노동은 사실적인 묘사라는 공통적 기반 위에서 각기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재현된다. 여농은 자연 풍광처럼 후경화되고, 마름집의 재생산 노동은 오감을 활용해 실감나게 재현되며, 갑숙이 이끄는 여공의 서사는 이상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분류는 작가가 여성 노동을 다채롭게 그려냈음을 보여주지만 ‘올바른 재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여농과 주부, 소설 후반부의 주요 사건을 담당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여공의 이야기는 이 작품이 ‘리얼리즘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재고하게 만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이 직면한 ‘재현의 아포리아’가 등장한다. 현실을 그려내는 재현은 태생적으로 실제의 현실을 넘어설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재현’은 결코 자연적이거나 단순히 외부 현실에 비추어 확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적 코드에서 항상 구축되어 나오는 것”⁵⁶⁾이자 작가의 의식이 투영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작가는 여성 노동을 재현하면서 현실적 상황을 핏진하게 반영했지만, 농업 노동자와 재생산 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서사에서는 이념을 개선하지 못했고, 공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실 반영보다 이념 개선이 앞서면서 인물에 대한 성급한 이상화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식민지 농촌의 여농, 주부, 여공들의 노동은 파편화되어 삶의 현장 곳곳에 흩뿌려진다. 그래서 이 노동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며, 부서져서 조각난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거나 남성 노동에 비해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56) 조셉 칠더스·게리 헨치 편, 황중연 옮김,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367면.

다. 다시 말해 식민지 농촌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지식인 남성인 작가와 서술자와 주인공의 시선 속에서 재식민화된다.

리얼리즘 문학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구현하는 것으로만 가정된다면 『고향』 속 여성 노동자의 형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리얼리즘 문학은 객관적 실재의 재현과 더불어 문학이 전달해야 하는 지향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상상적 진리까지를 구현한다. 문학은 인생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분투하면서 애매하고 역설적이며 아이러니가 넘치고 역동적인 글이 된다.⁵⁷⁾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당대의 문제적인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성 노동을 비롯하여 특정 현상에 대한 문학적 재현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논의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재현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현실에서 난관에 봉착했다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나 관점을 새로이 탐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설의 “예술성은 생활의 진실성과 묘사의 박진성”⁵⁸⁾에 작가의 소망과 사회의 방향성이 더해져 확보된다.

이기영이 「예술탐광가」에서 말한 것처럼 소설 작품은 자연의 물질을 이용하는 건축과 달리 “산사람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이면서 “정신적 심리적인 소위(所爲)”⁵⁹⁾이다. 그래서 한 작품을 끝까지 처음 의도한 대로 써나갈 수는 없는데, 『고향』에 나타난 여성 노동의 재현 방식을 탐구하는 일은 이 맥락에서 작가의 의식을 연구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기영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 선진적인 여성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와 발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추구하는

57)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2020, 268-271면.

58) 김윤식·정호웅(1999), 앞의 책, 143면.

59) 이기영, 「예술탐광가(藝術探鑛家)」, 『조광』 제44호, 1939; 임규찬·한기형 공편(1990), 위의 책, 398면.

그의 (무)의식 속에서 '저렴한 것들'과 동궤를 이루는 여성 노동의 가치는 절하된다. 이러한 면모는 식민지 조선의 농촌이 처해 있었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재현일 수는 있지만, 『고향』이 미적 총체성을 완성한 작품이라는 평가는 재고하게 만든다. 여성 노동을 둘러싸고 현실 반영과 이념 개진 사이에서 균형을 상실한 이 작품에서 구현된 것은 리얼리즘의 완성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찾아 나아가는 리얼리즘의 도정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기영, 『고향』, 『조선일보』, 1933.11.15.~1934.9.21.
_____, 『고향』, 문학과지성사, 2005.
임규찬·한기형, 『작가론 및 작품론: 카프비평자료총서VIII』, 태학사, 1990.

2. 단행본

-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강정택,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주)YBM, 2008.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1: 1896~1945』, 민음사, 2020.
김경일,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운동』, 문학과지성사, 2004.
김영희,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0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9.
배상미, 『혁명적 여성들 -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 노동,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19.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2020.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선인문화사, 2008.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1.
이재선, 『한국소설사: 근·현대편 I』, 민음사, 2000.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편,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한울, 2001.

마쓰모토 다케노리, 윤해동 옮김, 『조선 농촌의 식민지 근대 경험』, 논형, 2011.
낸시 홈스트롬 위음, 유강은 옮김,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퍼다 :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35인의 여성/노동/계급 이야기』, 메이데이, 2013.
데미안 그랜트, 김종운 옮김, 『리얼리즘』,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백우진·이경숙 옮김,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북돋움, 2020.
루나찰스키 외, 김휴 편, 『사회주의 리얼리즘-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문제』, 일월서각, 1987.
루스 밀크먼, 전방지·정영애 옮김, 『젠더와 노동 : 제2차 세계 대전기 성별 직무 분리의 역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 마리아 미즈, 최재인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갈무리, 2014.
-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 김현지 · 이영주 옮김, 『집안의 노동자 :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갈무리, 2017.
-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옮김, 『혁명의 영점 -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 _____, 황성원 · 김민철 옮김, 『캘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9.
- 조셉 칠더스 · 케리 헨치 편, 황종연 옮김,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3. 논문

- 구재진, 「1930년대 ‘집’ 공간 여성의 계급 횡단과 여성 해방의 (불)가능성 - 『인형의 집을 나와서』와 『고향』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9, 185-213쪽.
- 김정숙, 「매개적 인물의 창조와 비판적 현실 인식 -이기영의 『고향』 이전의 소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No.8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661-680면.
- 김철,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時空)」, 『한국문학연구』 제30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47-74면.
- 문홍술, 「이기영 《고향》에 나타난 미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Vol.4, 한국현대문학회, 1995, 129-149면.
- 배상미, 「1930년대 전반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와 한국문학사-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No.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37-68면.
- 변정화, 「이기영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그 전개방식: 초기 경향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Vol.29,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90, 61-92면.
-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학사연구』 No.45,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37-165면.
- 손유경, 「재생산 없는 ‘고향’의 유토피아」, 『한국문학연구』 No.4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79-208면.
- 이미림, 「이기영의 ‘여성해방’ 소설 연구」, 『여성문학연구』 Vol.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135-158면.
- 이채원,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이기영 -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7-54면.

- 장인형, 「日帝下 女性 勞動의 社會的 認識」,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진성,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제4집, 1988, 49-100면.
- 조은, 「가부장제와 경제」, 『한국여성학』 제2집, 1986, 95-135면.
- 최은혜, 「식민지 사회주의 농촌소설에서의 주체와 공동체 — 『고향』과 『상록수』 겹쳐 읽기」, 『現代文學理論研究』 No.85,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221-258면.
- 황종연, 「문학에서의 역사와 반(反)역사 이기영의 『고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No.67,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171-213면.
- 황지영, 「기술의 역학과 여공의 정동—1930년대 공장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7집, 2020, 519-549면.

<Abstracts>

Reorganization of the Colonial Rural Economy and the Path of Realism

– Focusing on 'women's labor' in Lee Ki-young's “Hometown.”

Hwang, Jiyong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s in which women's labor, an important pillar of the colonial rural economy, is represented and signified in Lee Ki-Young's *Hometown*,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class literature, and the features of the colonial rural economy underlying it. In the works, women's labor is scattered throughout the colonial countryside, forming a layered network of meanings with nature, food, care, and money (wages), which are dismissed as 'cheap things' in the process of capitalism. The continuous labor of women farmers is treated like a landscape, not separated from nature. The reproductive labor that sustains the lives of the various characters is realistically recreated using a variety of senses, but does not lead to events. In addition, the work of women, which is modern labor and part of the public economy, is idealized around the main character, Gaksuk. As capitalism centered on the monetary economy took hold in the colonial countryside, factors that do not directly drive economic development or produce goods are evaluated as unproductive or worthless. And in this process, the de-working of women's labor proceeds. By presenting the transformation led by the male protagonist and women's labor together in “Hometown,” Lee depicts how the colonial countryside is maintained and transformed as a place of life for peasants,

while modernity and pre-modernity, tradition and foreignness, production and non-production, and labor and non-labor are antagonized. By depicting the path through which the rural economy of colonial Korea was reclaimed by cheap goods through the medium of women's labor, Hometown complements existing realist novels and prepares for the next stage of realism.

Key words: Lee Ki-young, Hometown, female labor, non-work, representation, signification, realism

투 고 일: 2023년 5월 22일

심 사 일: 2023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6월 21일